

【第1回東北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제1회 동북아 미래 포럼】

(2023年8月21日、韓国ソウル:TV朝鮮會議室)

(TV조선 세미나실)

報告テーマ: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지정학과
지역협력의 새로운 과제

米中覇権競争時代の地政学と
地域協力の新しい課題

李 鋼哲 리강철

一般社団法人・東北亞未来構想研究所

일반사단법인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はじめに: 들어가는말:

東北アジア地域では、1990年代初頭に大きな地殻変動が起こり、世界的な冷戦崩壊とともにグローバル化時代と地域協力の時代を迎えた。

30年後の現在、東北アジア地域は再び大きな地殻変動が起こり、「新冷戦」とも言われる、反グローバリズム、ナショナリズムの時代を迎えている。

동북아지역에서는 1990년 대초에 크나큰 지각변동이 일어나 세계적 냉전붕괴와 더불어 지구화 시대와 지역협력의 시대를 맞이했다.

30여년이 지난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또다시 크나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신냉전] 이라고 불리는 반지구화와 내셔널리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I. 米中は「新冷戦」時代に突入

미중 [신냉전] 시대에 돌입

* 米国(トランプ政権)は、2018年3月対中貿易のバランス問題(対中貿易赤字)を口実に中国に対して高い関税を課す。

* しかし、貿易戦争から始まる対立は、本質的には台頭する大国中国に対する覇権国の米国による世界覇権争いの本格化に他ならない。

*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2018년 3월, 대중국 무역 밸런스 문제를 구실로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

* 그러나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대립은 본질적으로는 대두하고 있는 대국인 중국에 대한 패권국 미국의 세계패권 경쟁의 본격화로 보여진다.

* それに対して、中国当局は真正面から対抗措置をとり、一歩も譲らない姿勢を示す。

* その背景には、中国の急速な経済成長に伴う大国化および軍備増強と世界の既存秩序に対する挑戦(対等関係を求める中国)がある。

* 世界2大国(G2)は、全く異なる価値観と体制。つまり、自由民主主義の総本山米国VS共産党一党独裁の牙城中国、という対立構図。

* 중국당국은 정면으로 부터 대항조치를 취하며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취함.

* 그 배경에는 중국의 수십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대국화 및 군비증강과 세계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즉 미국과의 대등관계를 추구하는 양상이 보인다.

* 세계 2대 강국(G2)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체제이다. 즉 자유민주주의의 리더인 미국VS 공산당 일당독재의 중추국가인 중국의 대립구도가 선명해졌다.

* 米中両国の対立は、貿易摩擦
→先端技術戦争(5G等)→金融
戦争へとエスカレートし、政治
的、経済的、軍事的な全面对立
に発展しつつある。

* 中国当局は、国内では集権化
を図り、国際的には「戦狼外交」
を展開。

西側の価値観を完全否定し、
「中国式民主主義」を主張する
(2021年3月18日に米アラス
カ州で会談したブリンケン米国
務長官と中国の外交担当トップ、
楊潔篪共産党政治局員らの冒
頭発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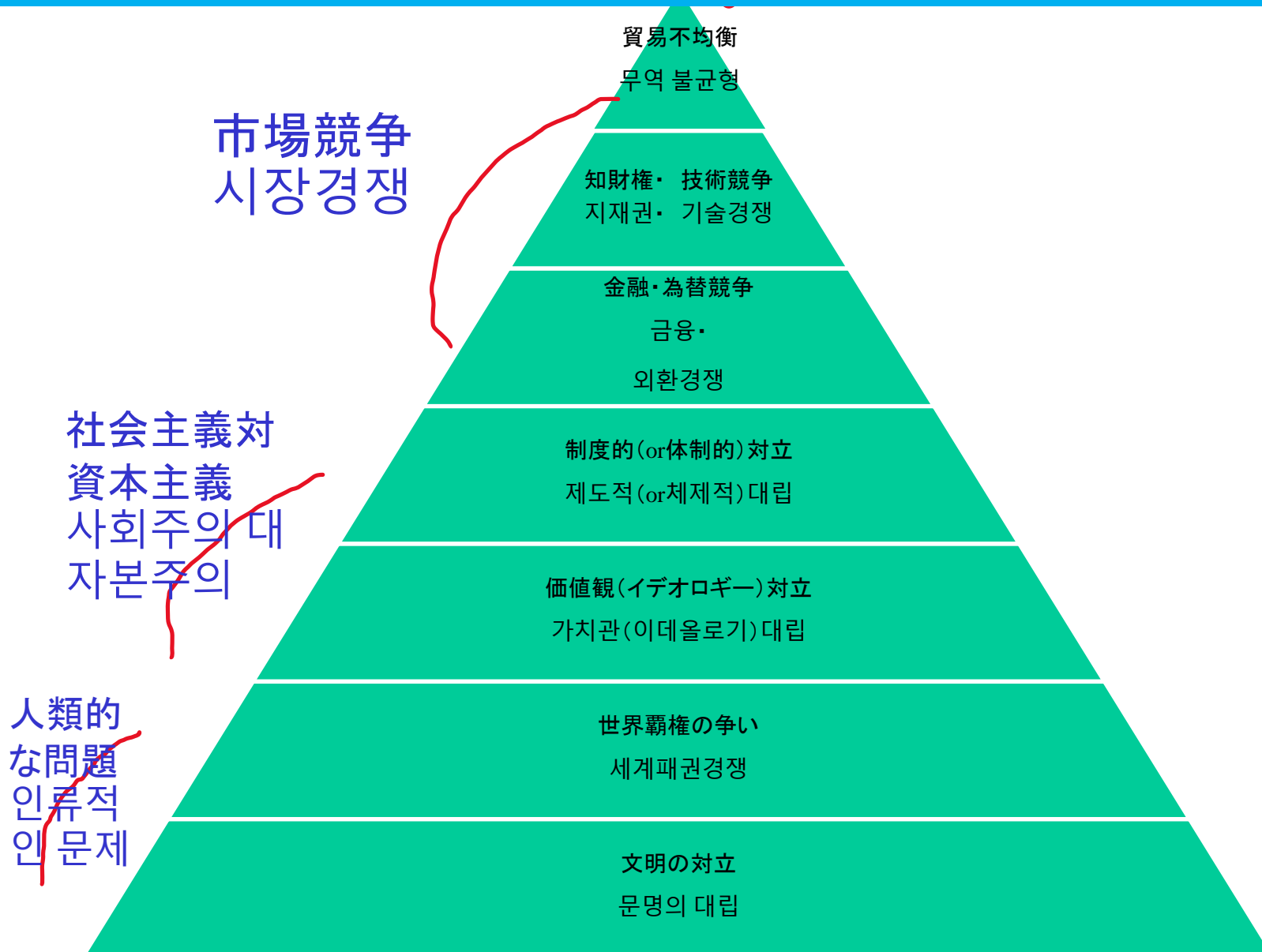
* 미중양국의 대립은 무역마찰
→첨단기술경쟁(5G)
→금융대립으로 에스갈레트
하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전면 대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 중국당국은 국내에서
집권화를 도모하고 국내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으로는 [전랑외교]를 펼쳐가며
서방의 가치관을 완전히
부정하고 [중국식의 민주주의]
를 주장하고 있다.

(2021년3월18일 미국 알라스
카주에서 회담때 중국의 외교
담당 최고 지도자인 양제츠의
발언)

「新冷戦」の構造と特徴

[신냉전]의 구조와 특징



「新冷戦」の構造と特徴

[신냉전]의 구조와 특징

米ソ冷戦(「旧冷戦」と称する)の時期と比較すると「米中新冷戦」は以下の5つ特徴を持つ。

미소냉전(구냉전)의 시기에 비교하면 [미중신냉전]은 아래와 같은 5개 특징이 있다.

- ① 非対称性
- ② 経済のデカップリング
- ③ 同盟対非同盟
- ④ 最前線がヨーロッパから、東アジアにシフト
- ⑤ 既存秩序VS新秩序
- ⑥ 経済的な相互依存構造とサプライ・チェーンの形成

- ① 비대칭성
- ② 경제적 디커플링
- ③ 동맹과 비동맹
- ④ 최전선이 유럽에서 동북아시아로 이전
- ⑤ 기존질서와 새질서
- ⑥ 경제적 상호의존 구조와 공급망의 형성

Ⅱ. 中国の大国戦略と世界秩序への挑戦

중국의 대국전략과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

21世紀初頭に南北逆転・東西逆転への胎動

* アメリカの覇権衰退が加速し、

世界経済における南北(先進国対新興国)逆転現象と東西(アジア対欧米)逆転の動きが複合しつつ進展。

* 2014年中国の購買力平価(PPP、IMF推計)GDPが米国を超える。

21세기에 들어서 남북역전과 동서역전이 태동

* 미국의 패권쇠퇴가 가속, 세계경제에서의 남북 역전(선진국 VS 발전 도상국) 현상.

* 동서역전도 동시에 복합적으로 진행중.

* 2014년 중국의 구매력 평가(PPP、IMF추계)GDP가 미국을 초월.

新興G7の経済力（PPPのGDP）が先進G7を抜いた。

（IMF2018推計）

先進国G7：GDP（PPP）34兆5千億ドル（米英仏独伊日加）

新興国G7：GDP（PPP）37兆8千億ドル（BRICs4カ国、インドネシア、メキシコ、トルコ）

신흥 G7의 경제력（PPP의GDP）가 선진국 G7을 초월.

（IMF2018년추계）

선진국 G7GDP34.5조달러

신흥국G7GDP37.8 조달러
（BRICs4개국、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 国力増強を背景に、中国の習近平政権は大国外交戦略を積極的に打ち出す。

* 2013年から、習近平は「**一帯一路**」構想を打ち出し、「一帯一路基金」も設立。

* 中国を中心に、2015年「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AIIB)」設立(16年に57ヶ国、2020年10月現在100ヶ国が加盟)。

* 国力증강을 배경으로 중국의 시진핑정권은 대국외교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 2013년부터 [일대일로]구상을 제기, 동기금도 설립.

* 중국을 중심으로 2015년에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16년에 57개국, 2020년10월100개국 가맹).

*「上海協力機構(SCO)」
による国際銀行の設立。

*「BRICS国際銀行」の設
立など、いずれも中国が
主導

* 強力な経済力を背景に
、アジア、アフリカ、中東、
南米の第3世界に積極的に
経済進出し、先進国にも進
出(ギリシャやイタリアなど)
。

*「상해협력기구(SCO)」
에 의한 국제은행 설립.

*「BRICS국제은행」
설립등은 중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 강력한 경제력을 배경
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주등 제3세계에
적극적으로 경제진출.
선진국에도 진출(그리스
,이태리)

Ⅲ. 中国経済の現状と展望

중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国内の深刻な構造的問題

① 経済成長率が急速に低下:
政府の発表ではGDP成長率は6.5%(2018年)だが、実態経済を反映していない

(実態は1.67%、またはマイナス成長だと内部資料で推計、中国人民大学の向松祚教授の報告による)。

2020-22年はコロナ禍のなかで他国よりはGDPの高い成長率を見せたが、それは実態を反映せず、信憑性が低い数字。

국내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

① 경제성장율의 급속 하강:
정부가 발표한 GDP 성장율은 6.5%(2018년)이나 실태경제를 반영하지 않고(실태는 1.67%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재부자료의 추계가 중국인민대학의 상송조교수의 보고에 의함)。

2020-22년, 코로나 사태중에 다른나라에 비하면 성장율이 높다고 하나 실태를 반영하지 않기에 신뢰성이 낮다.

②不動産バブル、金融バブル崩壊の危険性。政府や企業の債務がGDPの2.5倍～10倍。貨幣M2の発行量が日米欧合計額より多い

③民間企業の萎縮、「国進民退」現状が顕著。新たな「公私合営」による民間企業の「国有化」と「蕪刈り」で財政逼迫に対応。

④失業問題:製造業や貿易企業、飲食業等の倒産急増(失業者が急増)、コロナ禍で失業者1億人以上と推計される。

⑤資本逃避:外国企業の拠点を第三国に移転。国内富裕層の海外資金移転。資本逃避の規模は15年後半で年間1兆ドル(外貨準備が1兆ドル減少)。国内の投資家や富裕層による資金の海外移転。

②부동산 버블, 금융 버블 붕괴이 위험성이 높다. 정부와 기업의 부채가 GDP의 2.5~10배. 화폐M2의 발행량이 미일구 총합보다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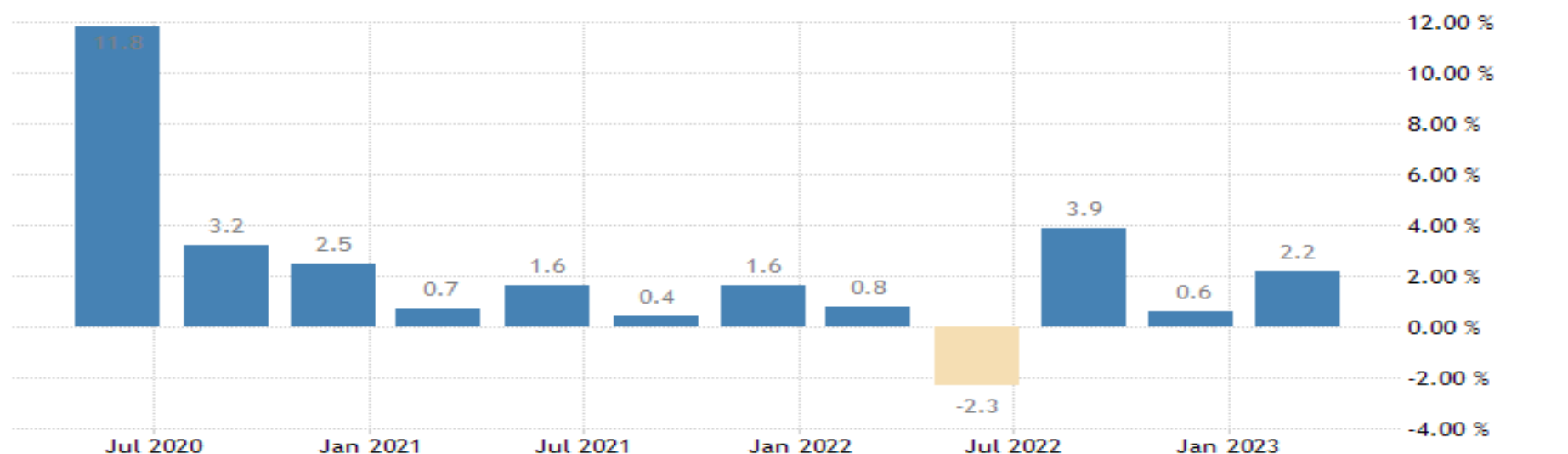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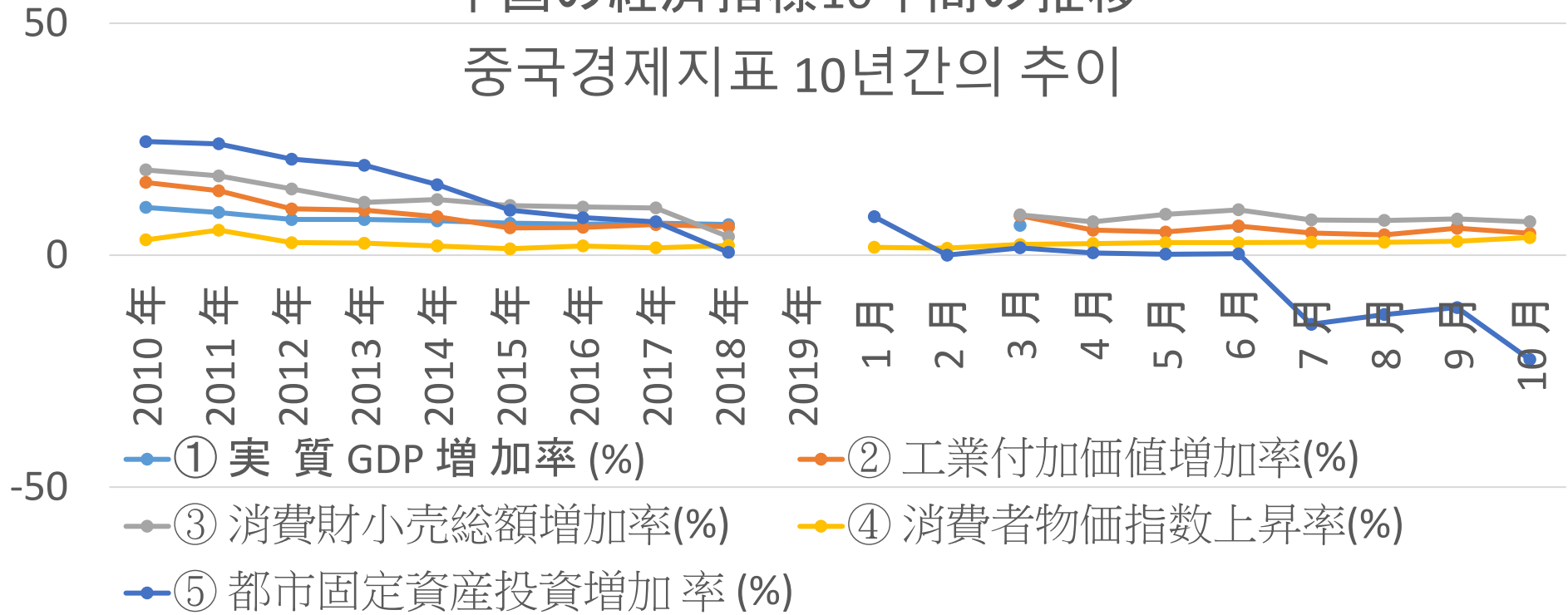
③민간기업의 위축과 「국진민퇴」현상이 현저하고 새로운 「공사합영」에 의한 민간기업의 「국유화」와 「부추베기」로 재정 압박에 대응.

④실업문제:제조업과 무역기업, 음식업등 부도가 급증,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⑤자본의 도피:외자기업들은 제3국에 거점을 이전. 국내부유층은 해외로 자금을 이전. 자본 도피 규모는 2015년 1조달러 규모.

中国の経済指標10年間の推移

중국경제지표 10년간의 추이



「中進国の罨」と「体制移行の罨」

「中進国の罨」懸念の理由

- ① 勤労者の所得上昇とコスト増加で製品の国際競争力が低下。
- ② 輸出主導→内需主導へと転換、構造改革は進まない。
- ③ 貿易自由化、資本自由化が許されず、第2次産業の十分な発展を邪魔する。
- ④ 国有企業の改革が進まず、生産性が低く、イノベーション力が弱い(ゾンビ企業の大量発生)。にもかかわらず、国有企業を強化し、民間企業を抑制する「国進民退」常態化。
- ⑤ 民営企業が弱体化(とりわけ製造業と輸出が不振)。
- ⑥ 不動産、金融バブルの崩壊による国内景気の低迷、インフレ拡大の懸念。

「중진국가의 덧」과「체제이행의 덧」

중진국의 덧이 될 이유

- ① 근로자 소득상승과 코스트증가로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저하.
- ② 수출주도→내수주도로 전환과 구조개혁이 부진함.
- ③ 무역 자유화와 자본 자유화가 허용되지 않기에 제2차산업의 발전의 장애가 된다.
- ④ 국유기업의 개혁이 부진하고 생산성이 낮고 이노베이션력이 약하다(좀비기업이 대량발생). 하지만 국유기업을 강화하고 민간 기업을 압박하고 있어「국진민퇴」가 상태화되고 있다
- ⑤ 민영기업의 약화로 특히 제조업과 수출이 부진함.
- ⑥ 부동산과 금융버블의 붕괴가 되면 국내경기가 알화되고 이플레션의 확대가 우려된다.

「体制移行の罨」:

清華大学凱風発展研討院・社会発展研討課題組(2012)の報告

* 市場移行過程で形成された既得権益集團が、現状維持を求めて改革深化を阻止し、移行期の特徴を具現化した体制を定型化し、その利益を最大化するのに有利な「混合型体制」を構築して、経済社会発展の奇形化と经济社会問題の深刻化をもたらしている。「中所得の罨」が経済停滞を招来するのに対して、「体制移行の罨」は经济社会発展の奇形化。

5つの「病状」

- ① 経済発展が奇形化
- ② 移行期の体制の定着化に伴い、体制改革は窮地、とくに政治改革は放置
- ③ 社会構造が固定化、分断社会が形成
- ④ 社会矛盾に対する誤った判断に基づき、「社会の安定維持」を最優先する政策
- ⑤ 社会の崩壊が日増しに顕著。

「체제 이행의 덧」

청화대학 카이펑(凱風)발전연구원의 사회발전연구 과제팀의 2012년차 보고

* 시장경제 이행과정에서 형성된 기득 이익집단이 현상유지를 요구하여 개혁의 심화를 저지시킬려고 하며 이행기의 특징을 구현화한 체제를 정형화하고 그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유리한 「혼합형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사회발전의 기형화 문제를 심각화 하고 있음。「중진국의 덧」이 경제의 정체를 도래하는데 대하여「체제 이행의 덧」은 경제사회발전의 기형화를 초래한다.

5가지의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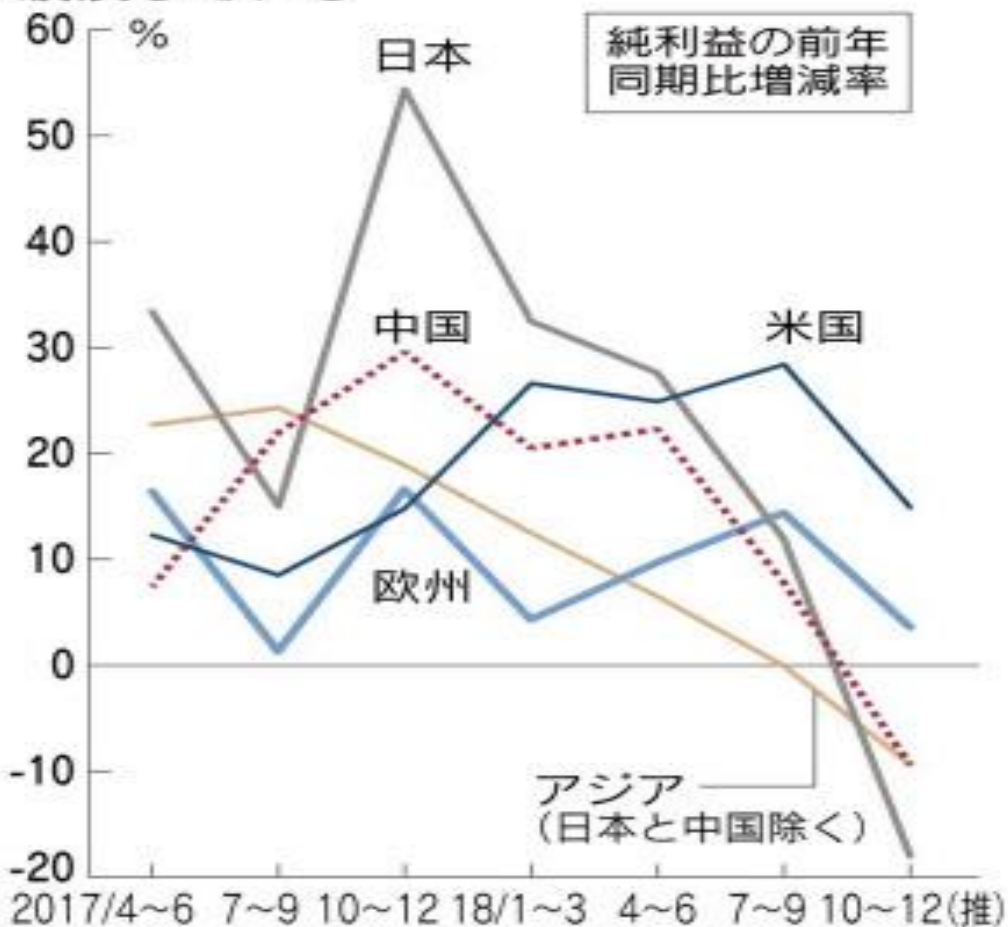
- ① 경제발전의 기형화
- ② 이행기체제의 정착화에 따라 체제개혁이 궁지로 특히 정치개혁이 방치상태.
- ③ 사회구조의 고정화와 분단사회의 형성.
- ④ 사회모순에 대한 틀린판단에 근거해 「사회의 안정유지」를 최우선하는 정책.
- ⑤ 사회의 붕괴가 날따라 현저해짐.

IV. 東北アジア経済に与える影響

동북아경제에 주는 영향

中国景気の減速が世界の企業業績に波及している

日本経済新聞2019.2.4



2018年10~12月期は中国が前年同期比で最終減益で、日本やアジアもマイナス。日本の最終減益は2年半（10四半期）ぶり。米欧も7~9月に比べ増益率が鈍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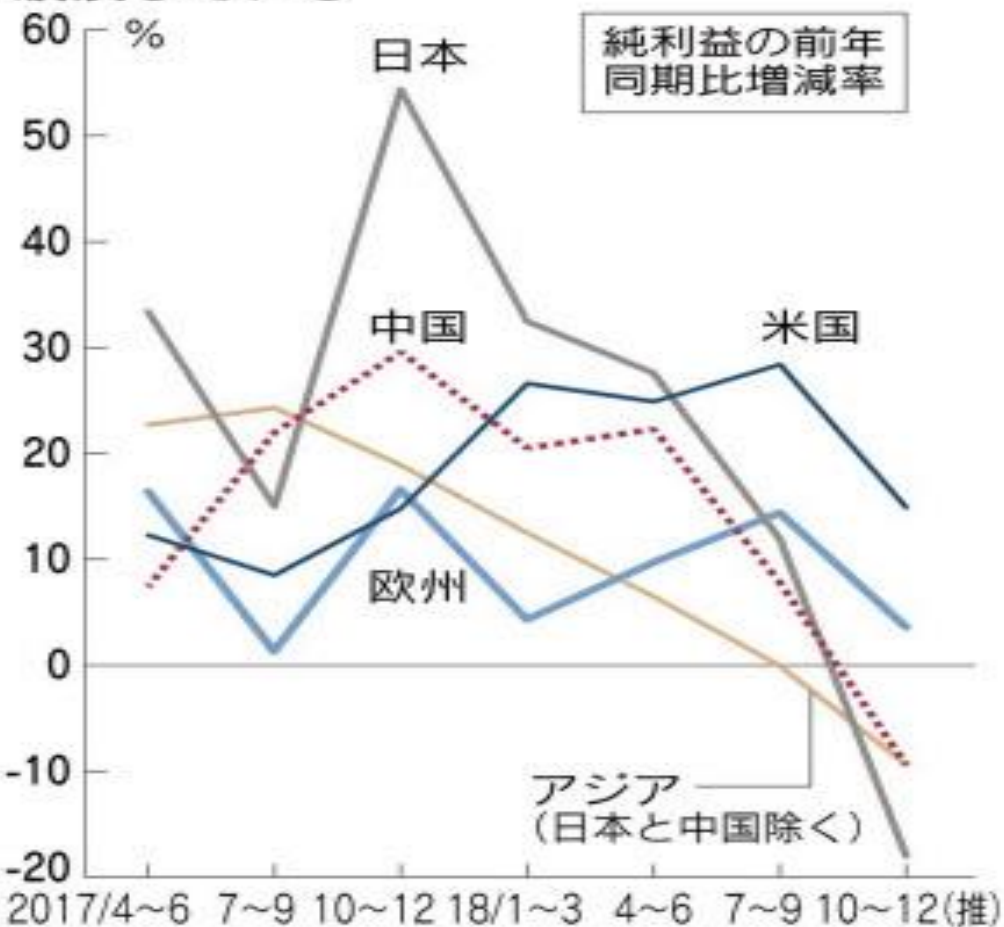
「世界の消費地」となった中国の景気が減速し、悪影響が広がっている。米中貿易摩擦やスマートフォン（スマホ）市場の飽和も響いた。約2年間にわたって続いてきた企業業績の拡大基調が途切れるようなら、世界経済への逆風となる。

(注)日本は1日までの発表分。中国とアジアは「Asia300」企業、米国はS&P500、欧州はSTOXX600の構成企業。いずれも継続比較ができない企業などを除く。アナリスト予想平均は米欧はリフィニティブ、その他はQUICK・ファクトセットのデータを使用

IV. 東北アジア経済に与える影響

동북아경제에 주는 영향

中国景気の減速が世界の企業業績に波及している



(注)日本は1日までの発表分。中国とアジアは「Asia300」企業、米国はS&P500、欧州はSTOXX600の構成企業。いずれも継続比較ができない企業などを除く。アナリスト予想平均は米欧はリフィニティブ、その他はQUICK・ファクトセットのデータを使用

중국의 경기감속이 세계의 기업업적에 파급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2019.2.4)

2018년10~12월기의 중국경제의 전기대비 최종 이익감소로 일본과 아시아도 마이너스로 됨.

일본의 최종 이익감소와 2년반 이래 (10개의4분기) . 구미도7~9월에 비해 이익률이 둔화됨. 「세계의 소비지」 중국의 경기감속에 의한 악영향이 확산. 미중무역마찰이거나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도 영향주고 있음. 약2년간 계속되던 기업업적의 확대기조가 끈기게 되면 세계경제에도 역풍이 된다.

* 米中覇権争いは、中国および東北アジア経済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東北アジアでは、日中をはじめ広範なサプライ・チェーン生産・販売構造になっているが、構造転換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

* 中国で生産している日本企業、韓国企業など外国企業(とりわけ対米輸出企業)大きな打撃になる。中国に拠点を置いた外資系企業は東南アジアやインド等に拠点を移す動きがあり、資本逃避が日増しに強まっている。

* 미중패권쟁탈전은 중국 및 동북아 지역경제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중 한을 중심으로 폭넓은 공급망 즉 생산과 판매 구조가 되어 있는데 부득불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됨.

*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기업등 외자기업(특히 대미수출기업)들은 큰타격을 받고 있음. 외자 기업들은 동남아 나 인도등에 거점을 이전 하여 자본도피가 갈수록 심.

* 2019年3月、香港最大の長江和記実業の李嘉誠氏の中国資産(香港を含む)が総額ベースで1割に縮小し、欧州資産は5割を超えた。

李氏が中国撤退の英断を下したのは、2013年頃と推定、同年10月、建設中の上海陸家嘴東方匯経中心(OFC)を90億香港ドルで売却した。

台湾の企業も中国から撤退が進む。

* 2019년3월 홍콩최대의 장각화기기업의 리자청씨의 중국에서의 자산(홍콩을 포함)이 총액베이스로 10% 축소.유럽에서의 자산은 절반을 넘었다.

리씨가 중국철퇴의 결단을 내린것은 2013년경으로 추정. 그해10월에 건설중의 상해루자주의 동방후이징 중심(OFC)를 90억 홍콩 달러로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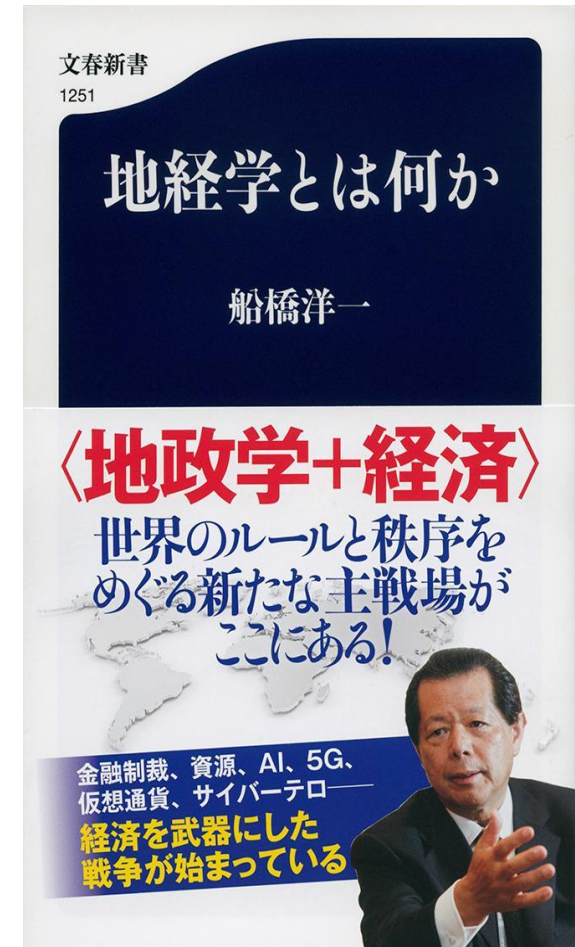
대만의 기업들도 중국에서 철퇴가 많아지고 있다.

V. 東北アジアの「地政学」と「地経学」 동북아 [지정학]과 [지경학]

「地政学」は地理的条件、歴史、民族、宗教、資源、人口などをベースに、国際情勢を分析する。地政学的課題を解決するために、経済を武器として使うこと—それこそが「地経学」。「地政学的な利益を、経済的手段で実現しようという政治・外交手法」

米中の貿易をはじめ、ジオエコノミクス（Geo-economics）の闘いは、すでに始まっている。両国の覇権争いは、かつての米ソ冷戦とは違う。AI、5G、自動運転などの新技術をめぐる競争も重なる中、経済安全保障、経済制裁、技術覇権など、地経学が扱うべき課題は多い

（船橋 洋一『地経学とは何か』（文春新書2020）



V. 東北アジアの「地政学」と「地経学」 동북아 [지정학]과 [지경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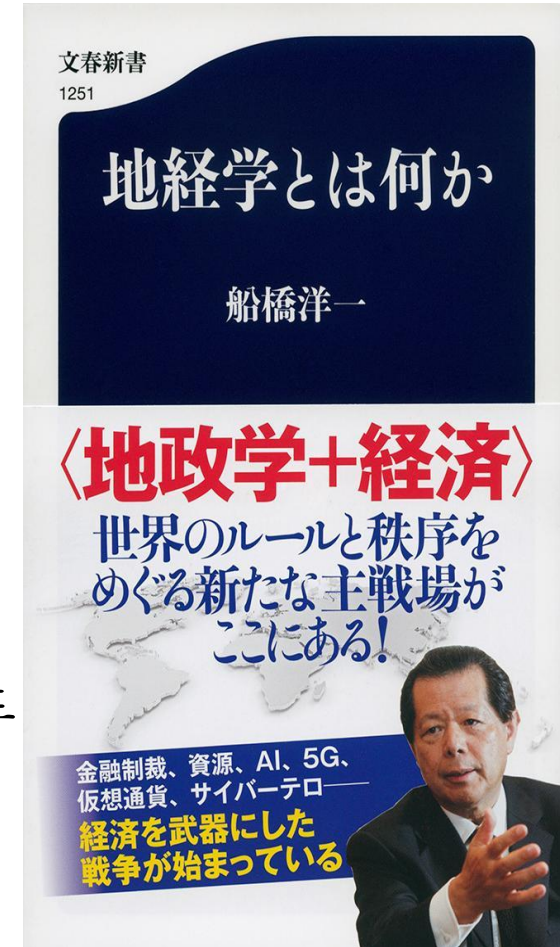
「지정학」은 지리적조건, 역사, 민족, 종교, 자원, 인구등으로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학문.

지정학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를 무기로 쓰는것이 곧 「지경학」. 다시말하면

「지정학적 이익을 경제적 수단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정치, 외교수법」이다.

미중 무역마찰이 바로 Geo-economics의 싸움이다. 양국의 패권쟁탈전은 예전의 미소냉전과는 다르다. AI, 5G, 자동운전등 새 기술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 경제안전보장, 경제제재, 기술패권등 지경학이 취급할 과제는 많다.

(후나바시 요이치 『지경학이란 무엇인가』 (文春新書2020)



米中両国の「新冷戦」は、2国間摩擦を超えて、地球規模で大き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

トランプ政権時代に始めた摩擦や対立は、今やバイデン政権になってはからは全面的な外交対立に進化し、民主主義国家「連合」対中国(+@:ロシア、イラン、北朝鮮など)への全面的な対立へと拡大しつつある。そして貿易摩擦中心から、人権外交中心へと外延が拡大しつつある。

미중양국의 「신냉전」은 2개 나라의 마찰수준을 넘어 지구적 규모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정권 시대에 시작한 무역 마찰과 대립은 지금 조 바이덴 정권시대에는 전면적 외교대립으로 발전하여 [민주주의 국가연합] 대 [중국+@:로시아, 이란, 북한등)에로 확대.

그리고 무역마찰로 부터 인권외교를 포함한 가치관 대립으로 외연이 확대됨.

*** その中で、東北アジア地域では、地政学的に朝鮮半島を中心に大国外交の焦点にあり、米国と同盟関係にある日本や韓国は厳しい選択を余儀なくされつつある。**

*** 日本は日米同盟を強化する動きに出ており、日中関係は停滞しつつある。**

*** 韓国は民主党政権のもとで韓米同盟が揺らいで、安全保障は米国、経済は中国という二股戦略だったが、**

尹錫悦政権では韓米同盟強化に乗り出し、韓国民の対中国世論は悪化している。

*** 동북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대국외교의 교착지이며 미국과의 동맹국 관계에 있는 일본과 한국은 엄연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음.**

*** 일본은 일미동맹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일중관계는 악화되고 있음.**

*** 한국은 민주당정권에서는 한미동맹과 한중 경제관계에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윤석열 한나라당 정권에 들어서면서 한미동맹에 기울여지고 있으며 한국민의 대중여론은 악화됨.

*** 東北アジア地域では、かつての冷戦対立構造で二つの「鉄の三角」が形成され、厳しい対立と対峙が続いてきたが、**

その冷戦構造はこの地域では完全に解消されず、新しい局面で再現する可能性すら出ている。

*** 経済のグローバル化は後退しつつあり、ナショナリズムが改めて台頭する。**

*** 동북아 지역에서는 냉전 대립구조 속에서 두개의 「철의 삼각」이 형성되어 엄연한 대립과 대치가 지속되어 왔는데 세계적 탈냉전 시대에도 냉전이 해소되지 않고 [신냉전] 시대에 들어가고 있음.**

*** 경제적 글로벌화는 후퇴되고 있으며 내선널리즘이 또 대두하고 있다.**

アジアのサプライ・チェーン構造は大きな挑戦に直面し、すでに構造転換が始まっている。

* 他方では、政治的、安全保障面での対立がますます厳しくなりつつある。

* 東北アジア(環日本海地域)は、今まで経験したことのないの新情勢に直面する。

아시아의 공급망 구조는 크나큰 도전에 직면. 구조조정은 이미 시작되었음.

* 다른 한면에서는 정치적, 안보면에서의 대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동북아 지역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세 에 직면.

終わりに: 地域協力の課題と展望

맺는 말: 지역협력의 과제와 전망

* 글로벌的な国際関係および東北アジア地域の国際関係の現実は厳しい局面に差し掛かってい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 しかし、「平和な人類社会」を実現する、という普遍的な価値観で考えた場合、「対話と協力」が主旋律になるべきであり、「対立と戦争」は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

対立は「両敗具傷」をもたらし、戦争は破壊と壊滅をもたらす。

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と戦争がその良い例である。

* 東北アジア地域では、南北朝鮮や中台関係、そして国際関係において対話と協力で問題解決を図らなければならない。

* 글로벌의 국제관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 그러나 「평화의 인류사회」를 실현한다는 보편적 가치관으로 생각할 때 「대화와 협력」은 사회의 주선률이 되어야 하며 「대립과 전쟁」은 회피해야 한다.

대립은 「양패구상」의 결과를 가져오고 전쟁은 파괴와 회멸의 결과를 가져온다.

고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이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 동북아시아에서는 남북한이나 중국 대만의 관계 그 외의 국제관계를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終わりに: 地域協力の課題と展望

맺는 말: 지역협력의 과제와 전망

* 我々は小さな民間団体ではあるが、国際的な組織であり、東北アジア諸国の叡智を集め、国境を越えた知的フラット・フォームを構築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そして我々の交流活動を通じて諸国間の経済交流や文化交流の発展に如何に貢献するかが、歴史的が付与した重要な課題である。

「冬の時に春を迎える準備をする」、

「冬が過ぎたら必ず春が来る」

東北アジア地域の平和と繁栄を実現する信念をもって、30数年培ってきた交流の経験と叡智をもって、今後とも国境を越えた交流を活発に展開すべきである。

* 우리는 자그마한 민간단체에 불과하지만 국제척 조직이며 동북아 각국의 지혜를 결집한 국경을 넘어선 지적 플랫폼 품을 구축할 수 있다.

우리들의 교류 활동을 통해 각국간의 경제 교류화 문화 교류의 발전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중요한 과제이며 사명이다.

「겨울에는 봄을 맞는 준비를 한다」 「겨울이 지나면 꼭 봄이 온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30여년간 길러온 교류의 경험과 지예로 앞으로 국경을 넘어선 교류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ご清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李 鋼哲(리강철)Profile

一般社団法人東北亞未來構想研究所所長

専門: 東北アジア經濟、開發經濟、國際開發金融

略歴:

中国労働關係大学専任講師歴任
1991年来日、

東京財団研究員、内閣府傘下総合研究開発機構(NIRA)主任研究員として經濟政策の研究に従事、
北陸大学經濟經營学部教授

著作:

『北東アジア開發銀行の創設と日本の對外政策』(共著、2002)

『アジア共同體の創成プロセス』(李鋼哲編著、2015)

『經濟から見た北朝鮮』(共著、2010)、その他著作、論文多数

일반사단법인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소장

전공: 동북아경제, 개발경제, 국제개발금융

약력:

중국노동관계대학 전임강사
1991년 독일

동경재단연구원,
내각부산하 종합연국기구(NIRA)에서 경제정책연구에 종사
호쿠리쿠대학경제경영학부교수

저작:

{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과 일본의 대외정책}(공저,2002)
[아시아공동체 구축 프로세스](편저2015)

[경제로부터 보는 북한](공저,2010)

그외 저작, 논문 다수